

SOC 확충에 예산 1조8,600억 배정

철도·고속도로·국도 건설

내년 육상교통망 사업비 올해보다 5,749억원 증가

내년도 도 관련 육상교통망(이하 SOC)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44%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시간대 철도망 구축, 도 전역 2시간대 접근 도로망 등 신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교통망 확충에 탄력이 붙게 됐다.

3일 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도내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 건설사업비는 총 1조8,625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올해 이 분야 정부예산 1조2,876억원보다 5,749

억원(44.6%) 증가한 것이다. 또 지난 3년간의 평균 1조3,000억원대에 비해서도 크게 늘어났다. 내년 SOC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부터 공사가 본격화될 원주~강릉복선철도 사업비가 올해 1,80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2,850억원 늘어난 것이다. 동해중부선 철도 포항~삼척구간도 올해 1,100억원에서 1,700억원으로, 태백선 철도 제천~쌍용 구간은 500억원에서 716억원으로, 중앙선 철도 원주~제천 구간은 4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태백선 제천~쌍용 구간은 내년에 개통된다.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1,950억원에서 2,846억

원으로, 동해고속도로 주문진~속초 및 동해~삼척 구간은 1,347억원에서 1,482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은 내년에 2,846억원이 모두 반영된다. 2015년 개통이 불투명하다. 2015년 개통이 목표인 이 구간에는 총 2조7,177억원이 필요하나 이중 2008년부터 내년까지 6년간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150억원에 불과하다. 2015년 개통을 위해서는 내년부터 매년 평균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특히 동서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 개통이 늦어지면 내년부터 개발사업이 시작될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설악권 관광 활성화, 동해안 발전종합계획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동계올림픽 연계도로인 국도 6호선에 468억원, 국도 38호선에 900억원이 반영되는 등 11개 노선의 국도 사업비도 올해 3,168억원에서 3,751억원으로 증가했다.

남동진 도 건설발전재국장은 “국회의원 등과 공조해 신동북아 시대에 대응한 교통망 조기확충 필요성을 적극 제기한 결과 어느 해보다 SOC사업비가 늘었다”며 “국회 예산심의·의결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공조해 SOC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완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강원 SOC 예산 1조 8625억 배정

<사회간접자본>

18개 사업...올 정부예산액보다 44.6% 증가

춘천~속초 동서 고속화철도 사업비 미반영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내 SOC 예산이 1조8625억원 반영됐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도내 SOC 사업 예산이 올해 1조2876억원보다 5749억원 증액된 1조8625억원 반영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액보다 44.6% 늘어난 수치고 국토해양부 요구액(1조1170억원)에 비해서는 무려 66.7% 증액된 액수다.

도내 SOC 사업 정부 예산안 중 철도예산은 4건에 8266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고속도로는 4건에 6608억원, 국도는 10건에 375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철도의 경우 2018평창동계올림픽

핵심 교통망인 원주~강릉 복선철도가 465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동해중부선(삼척~포항) 철도 1700억원, 중앙선(원주~제천) 1200억원, 태백선(제천~쌍용) 716억원 등 모두 826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배정된 예산 5130억원보다 3136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고속도로는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2846억원 △제2영동고속도로 2280억원 △동해고속도로(주문진~속초) 714억원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768억원 등 4개 사업에 6608억원이 편성됐으며, 국도의 경우 국도 38호선이 900억원으로 가장 많이 배정됐다.

<도내 주요 SOC사업 2013년 정부예산(안)>

사업명	2013년 예산(안)
철도(9)	8,266
춘천-속초(동서고속화)철도	-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4,650
경춘선복선전철	-
중앙선(덕소-원주)복선	-
수도권교외선(신탄-철원)	-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	1,700
영동선(동백산-도계) 철도이설	-
태백선(제천-쌍용)	716
중앙선(원주-제천)	1,200
제2영동고속도로	2,280

사업명	2013년 예산(안)
국도(11)	3,751
국도 5호선	388
국도 6호선	468
국도 7호선	266
국도 31호선	523
국도 35호선	197
국도 38호선	900
국도 42호선	452
국도 46호선	-
국도 47호선	267
국도 56호선	100
국도 59호선	190

<단위:억 원>

그러나 강원 3대 현안 중 하나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비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SOC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신광역교통망 확충의 당위성을 맨투맨식 대응으로

적극 대처한 결과”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하고,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총 동원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